



제목	Reading Jalal al-Din Rumi through Deconstructio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ommon Ground Publishing
발행일	2016. 6. 10.
저자	Mohsen Ghasemi
출판도시	Champaign
페이지수	150
ISBN 또는 ISSN	978-1612298856

**내용 요약**

‘해체주의적인 방식 또는 관점으로 루미 읽기’는 근대와 탈근대가 공존하는 21세기에 적합한 독서법이다. 특히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전환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대의 주체중심주의적 질서와 약육강식의 법칙을 점검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다. 루미의 시와 ‘사랑의 종교’, 산문 등은 중심과 구심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과 움직임을 내포한다. 루미의 시에서는 세속적인 사랑과 천상의 사랑이 수평적 관계를 견지하고, ‘사랑의 종교’에서는 ‘사랑’과 ‘종교’가 동일시되며, 산문에서는 근대적인 인간 인식의 한계를 비유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페르시아 중세 고전 수피 시인 루미와 해체주의의 선봉에 섰던 데리다의 만남을 주선하고 두 사람의 화해를 시도한 것은 일종의 역발상이다. 루미와 데리다는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근대라 벽이 버티고 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지각변동과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지만 중세는 근대로 말미암아 극복되었고 탈근대는 근대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근대 주체중심주의적인 질서가 공고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중세의 루미와 탈근대의 데리다가 말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다.

이 책에서는 루미와 데리다가 해후한다. 이성 중심주의에 입각한 개인의 ‘의식’이 모든 가치의 잣대가 되는 근대의 한계와 수직적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근대 이전의 루미와 근대 이후의 데리다를 책 속으로 초대한다. 루미의 『마스나위』 안에 들어있는 ‘내적 분쟁’ 문제를 데리다가 들여다보고 서구 근대가 아닌 ‘동방’으로부터 차용한 방식으로 대립적인 이원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